

- 과목명 : 한국사의 이해
- 이 름 :
- 아이디 :
- 과제명 : 우리나라 역사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세의 침략과 관련된 대표적 사건 2가지를 선택하여 그 내용(원인, 과정, 결과 포함)을 정리하고, 사건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하여 자기 견해를 기술하시오.

<목차>

## I. 서론

## II. 본론

### 1. 임진왜란

### 2. 신미양요

## III. 결론

## I. 서론

우리나라는 지금은 위로는 북한, 러시아, 중국 옆으로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곁에 두고 있다. 근처에 가까운 나라가 많은 만큼 그리고 미국과 영국 같은 먼 곳에서도 우리나라를 간섭하려는 시도 때문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다.

단순히 우리나라는 지배하려고 침략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피해를 보는 경우 외에도 크게는 각 주변 나라들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까지 바꾸는 많은 전쟁 (침략)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각 나라에 어떤 영향들을 미쳤고 그리고 이런 침략, 전쟁으로부터 배울점이 있었는지까지 소개해보려 한다.

## II. 본론

### 1. 임진왜란

#### 1) 일본의 조선침략

16세기 말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을 이룬 후 국내 불평 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대륙 침략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20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조선을 침략하였다.

조선은 전쟁 초기에 부산진과 동래성에서 맞서 싸웠으나 일본군을 막아내지 못하였고 빠르게 북상하는 일본군을 막기 위해 충주에서 군사를 모아 전투를 벌였지만 패하였다. 결국 약 20일 만에 한성을 함락 당하였고, 선조는 의주로 피난하여 명에 지원군을 요청했다. 일본군은 계속 북상하여 평양을 점령하고 함경도 지방까지 침략했다.

#### 2) 전란의 전개와 극복

전쟁 초반 조선에 불리하던 전세는 수군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의 활약으로 점차 바뀌어 갔다. 특히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옥포를 시작으로 사천, 당포, 한산도 등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거북선을 비롯한 우수한 전선과 뛰어난 화약 무기를 갖춘 조선 수군은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여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라도의 곡창 지대를 지킬 수 있었다.

이후 명의 군대가 출병하면서 조선과 명의 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하고 일본군을 남쪽으로 밀어냈다. 이때 권율은 행주산성에서, 김시민은 진주성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일본군이 남쪽 해안 지방으로 밀려난 가운데 명과 일본 사이에 휴전 협상이 진행됐다. 3년에 걸친 협상이 결렬되자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왔다. (정유재란)

이미 침략에 대비하고 있던 조명 연합군이 일본군을 직산에서 격퇴하고,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명량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순신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본국으로 철수하는 일본군을 노랑에서 크게 물리쳤다. 이로써 일본군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은 7년 만

에 막을 내렸다.

### 3) 전쟁이 가져온 변화

임진왜란은 동아시아의 조선, 명, 일본이 참전한 국제전의 성격을 띠었다. 이로 인해 전쟁은 각국의 내정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전쟁터였던 조선은 가장 큰 피해를 겪게 되어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고, 전국의 농경지도 대부분 황폐화되어 한동안 심각한 식량 문제와 재정 문제가 나타났다. 그 밖에 불국사와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사고, 서적, 도자기, 그림 등 수많은 문화재가 불타거나 일본에 약탈당했다.

명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에 참여하여 국력이 더욱 약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만주에서 여진족이 급속히 성장하여 명과 여진족 사이의 긴장이 높아졌다.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뒤, 정권이 교체되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은 후 에도에 새로운 막부를 열고 약화된 다이묘 세력을 누르고 중앙 집권을 꾀하였다. 일본은 조선에서 포로로 끌고 간 기술자들을 통해 도자기를 비롯한 문화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 4) 자기 견해

일본의 개인적 욕심으로 인해 침략한 전쟁이 동아시아 3국의 역사를 크게 바꿨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일본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일본과 조선의 무의미한 인적, 물적 자원 낭비가 아니라 명나라까지 망하게 하는 3국의 역사를 크게 바꿨다고 생각한다.

만약 히데요시가 일본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선으로 침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 안정을 위해 내정에 힘썼다면 조선도 명나라도 일본도 다른 국면으로 역사가 전개되지 않았을까 싶다. 조선을 침략하는 것이 아닌 동맹으로써 발전했다면 그리고 이후에도 동맹으로써 외교활동을 가졌다면 일제 강점기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각자 더 좋은 국력을 길렀을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 2. 신미양요

### 1) 제너럴 셔먼호 사건

1866년 8월 정체 모를 이상헌 한 대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에까지 당도하였다. 이 배는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였다. 교역할 상품을 싣고 영국인 선교사 토머스를 앞세우고 평양까지 거슬러 올라온 제너럴셔먼호 승조원들은 이제 곧 프랑스가 병인 박해에 대한 보복을 하러 올 거라는 협박을 하며 조선과 통상을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제너럴셔먼호에 대해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라며 돌아가기를 요구했지만 승선하고 있던 미국인, 영국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민가를 약탈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당신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는 제너럴셔먼호를 불태우고 승조원들을 모조리 몰살시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5년 뒤 신미양요가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 2) 신미양요

1866년에 일어난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자국민 보호와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미국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났다.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복이 늦어지는 것은 진상 조사를 하는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인데 결국 1871년 5월 강화도를 침략했다.

미국은 한강의 수로를 탐색하고 측량할 것임을 조선에 통보했고 이에 조선을 승인을 거부했다. 미국 정찰대가 광성보에 이르렀을 때 조선은 공격을 개시했으나 우수한 화력의 미국은 광성보를 초토화시키고 곧이어 초지진, 덕진진등이 함락되고 다시 광성보를 공격했다. 당시 광성보는 어재연 장군이 지키고 있었지만 미국에 비해 화력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어재연 장군과 어재순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이 전멸했다.

미국은 강화도 점령 후 지속적으로 조선을 향하여 통상 수교 협상에 응할 것을 요구했는데 흥선 대원군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철수하고 만다.

## 3) 척화비 건립

병인양요 그리고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서양의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그들이 물러간다고 확신한 흥선 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하게 된다. 흥선 대원군은 전국적으로 세운 척화비를 통해 서양이 통상을 요구했을 때 이를 받아 들이는 것은 매국 행위라는 것을 못박아,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 4) 자기 견해

신미양요에서 누구의 승리를 따지기는 힘들거 같다. 미국에서는 최소한의 피해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전사시켰지만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목표였던 개항을 실패했다. 추가적으로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었겠지만 미국 내부 사정도 그리고 생각보다 강했던 우리나라의 저항으로 인해 미국 입장에서 목표를 이루지 못한 승리였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거의 전멸이라는 뼈아픈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개항을 거부하였고 척화비를 건립함으로써 강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신미양요를 통해 흥선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힘을 실어주었으나 내적으로는 쌓이는 반발과 불안감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탄핵으로 고종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소종은 개화파에 힘을 실어주게 되고 이후 일본에 개국해버리는 계기가 됐다.

## III. 결론

건국으로부터 지금까지 외세로부터 크고 작은 많은 침입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막아냄으로써 우리나라가 더 견고해지는 계기보다는 오히려 나라가 망하고 내부 갈등으로 인해 국력이 약해지면서 왕권이 변하고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는 결과가 생겼다.

지금 생각해보면 침입으로 인해 나라가 약해지고 바뀌는게 아니라 약해진 나라에 (내부갈등, 왕권 경쟁) 외세가 침입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1. 네이버 백과사전
2. 한국사의 이해 교안 1~7주차
3.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y7971/222944411932>